

천연물에서 기능성화장품소재의 개발

김동욱*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pedkim@inje.ac.kr*)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는 소재를 의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기능성화장품 고시 품목으로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닥나무추출물, 알부틴(arbutin), 에칠아스코빌에텔, 유용성감초추출물,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와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가 있으며, 주름개선 고시 품목으로는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가 있고, 자외선 차단 고시품목으로는 글리세릴과마, 벤조페논-3, 에틸헥실디메틸과바 외 28종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능성화장품소재는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백소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부틴은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고,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자외선 조사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주름개선 소재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레티놀은 피부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자외선 흡수제의 경우 벤젠 고리를 함유한 유기합성소재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사용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전세계 화장품의 주된 트렌드는 가급적 유기합성소재를 배제하고 천연소재를 활용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실험실에서 행하여진 각종 천연물(도라지, 참당귀, 연, 목초액, 돈 태반 등)의 화장품소재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화장품 소재 시험으로는 항산화효과시험, 미백효과시험, 주름개선 효과시험, 자외선 흡수시험, 항균시험, 유화력 시험, 안정성 시험 및 안전성 시험 등이 수행되었다.